

남북한 언어의 차이(3)

金 敏 洙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3. 40자모와 맞춤법

언어를 문자로 바꾸어 표기한 결과가 누구나 같다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하나의 큰 고민이 사라지겠지만, 언어 문화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부러 맞춤법을 하나의 규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표기의 통일을 기하려는 대책이다. 그러나, 규정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안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인 만큼, 각기 따로 규정한 남북의 맞춤법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남과 북의 언어차이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즉 같지 않은 맞춤법이다.

오늘날 특히 문자에 의한 활자매체가 대량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혈맥과도 같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남과 북의 격차는 결코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광복 후에 남북에서 일제하에 된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이후 각각의 제정에서도 '통일안'의 대원칙을 역시 공동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원론은 같고, 각론에서 부분적인 차이를 빚었는데, 이 다행을 안겨다 준 덕택은 바로 '통일안'이었다는 것이다.

1) 북한의 맞춤법 개정

- 1945. 8.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0. 10. 조선어학회) 시행
- 1946. 9. '통일안' 일부 개정 시행
- 1948. 1. '조선어 신철자법' 발표, 일부 시행
- 1954. 9. '조선어 철자법' 공포, 시행(1차 개정)
- 1966. 6. '조선말규범집' 공포, 시행(2차 개정)
- 1987. 5. '조선말규범집' 수정 공포, 시행(3차 개정)

요컨대, 남북 공통의 '통일안' 시대가 1945년부터 9년 계속되다가 1차 개정을 단행하여 12년간의 '철자법' 시대와 2차 개정의 '규범집' 시대 21년을 거쳤고, 현재는 3차 개정의 '새규범' 시대에 있다. '조선어 신철자법'을 널리 시행하지 않아서 3차 개정이라고 하겠는데, 남북 공통으로 견지한 것은 이른바 형태주의 원칙이다. 형태주의란 단어의 모양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발음대로 쓰기보다는 가령 꺼꼬지→껌꽃이, 늑쟁이→늑정이, 난나치→날날이 등처럼 되도록 형태를 같게 밝혀 적는 방식이다.

3.1. 사잇소리와 어미류

북한에서도 광복 후 조선어학회에서 주관한 국어강습회의 물결에 따라 국어의 회복운동이 각처로 전파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회의 맞춤법이 널리 보급되었으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1964년 김일성의 1·3교시에서 언급되고 있다. 우선 한글이 네모글자이기 때문에 단어가 고정된 형태를 이루지 못하여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철자법도 어렵다고 전제하고, 단어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해야 하는 풀어쓰기는 통일 후로 미루되, 지금은 띄어쓰기를 조절하여 단어화하도록 연구할 것을 요구했다.

1966년 5·14교시에서도 네모 글자로서의 결함을 더 많이 지적하고, 띄어쓰기를 개선한 맞춤법 '조선말규범집'을 실시하라고 명했다. 이것은 1987년에 일부 수정되었으나, 그 맞춤법에 나타난 남북의 차이는 지엽적이라도 도처에서 발견된다. 개중에서도 느끼는 격차는 사잇소리나 접사류의 표기라고 하겠다. 사잇소리 표기는 원래 단순치 않은데, 사이사를 쓰는 표준어와 쓰지 않는 문화어는 원칙부터 상반된다. 이들 발음까지 상반된다고 곱해한 교수도 있었지만, 실상은 다음과 같이 거의 그렇지 않다.

2) 남-북 사잇소리 표기의 차이(괄호 속 문헌어)

귓밥-귀밥[밥], 냇가-내가[까], 맏들-매들[똥](뫓들), 조갯살-조개살, 찻집-차집[집](차술), 붓독-보뚝, 빗바람=빗바람, 셋별=셋별(새별), 웃웃=웃웃(웃웃), 위층-웃층, 촛국-초국, 햇수-해수[쑤] 등

뒷마당-터[툰]마당, 뒷머리-뒤[뉘]머리(뫓뉘), 깻묵-깨묵(깨묵/쌔묵), 꺾날-계[젠]날, 제삿날-제사[산]날, 훗날-후[훈]날(훗남진), 뒷마루-퇴[툰]마루, 양치물-양치물(양깃물/양치물) 등

윗잇몸-웃이[운닌]몸(웃넛머리), 아랫니-아래이[랜니], 두렛일-두레일, 뒷입맛-뒤입[뉘님]맛, 아랫입술-아래입술, 웃잇-요잇, 깻잎-깨잎[깻넛], 나뭇잎-나무잎(나뭇넛), 사삿일-사사일, 훗일-후일(훗어미) 등

긱간-고간[간], 셋방-세방[뽕], 숫자-수자[짜], 찻간-차간[간], 뒷간-퇴간, 횡수-회수[쑤], 대구[꾸]=대구[꾸], 대수[쑤]=대수[쑤], 위병[뽕]=위병[뽕], 제삿[쌩]=제삿[쌩], 호수[쑤]=호수[쑤], 대기권[퀸]=대기권[퀸], 주권[퀸]=주권[퀸] 등

3) '규범집'(1987)→'조선말대사전'(1992) 수정

뒷일(맞 18)→뒤[뉘]일, 아랫집(맞 18)→아래집[집], 바다일(발음 27)→바다일[넛], 베개잇(발음 27)→베개잇[깻넛], 노래소리(발음 28)→노래소[쏘]리, 개바닥(발음 28)→개바[뽕]닥, 개대[때]/깻대, 새서[써]방/쌔서방 등

특히 규정을 고치지 않고 수정한 3)의 예가 특이하지만, 쏘리는 시선은 개정된 맞춤법 제15항에 사이스으로 뜻을 구별한다(예 : 셋별-새 별, 빗바람-비바람)고 한 보충이다. 이 보충을 되살리면, 사이스는 남북이 같아지겠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 않게 어긋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부 어미류에도 있다. 특히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다음 5)와 같이 중형으로 큰 혼돈이다. 형태주의 철자법의 결점이 빚은 이런 혼돈은 서둘러 절충의 묘를 찾아야 하겠다.

4) 남-북 어미류의 표기

할까-할가[까], (밥)이오[요]-이요, 이어[여]서-이여서, 이었[였]다-이였다. 기어[여]-기여, 기었[였]다-기였다, 되어[여]-되여, 되었[였]다-되였다, 뜨이어[여]-뜨이여, 뜨이었[였]다-뜨이였다. 띄어[여]-띄여, 띄었[였]다-띄였다, 드디어[여]-드디여 등

5) 남-북 접미사의 표기

더떨이-더퍼리, 딱딱이-따따기, 살살이-살사리, 썹썹이-썹썹기, 푸석이-푸서기, 꿀꿀이=꿀꿀이, 눈깜짝이=눈깜작이, 배불뚝이=배불뚝이, 빼죽이=빼죽이, 오뚝이=오뚝이, 코납작이=코납작이, 홀쭉이=홀쭉이 등

누더기-누데기, 무더기-무데기, 부스러기-부스레기, 싸라기-싸래기, 지푸라기-지푸래기, 호루라기-호르래기, 두드러기=두드러기, 쓰레기=쓰레기, 아지랑이=아지랑이, 시골내기=시골내기, 미장이-미쟁이, 멧쟁이=멧쟁이, 지팡이-지팽이, 깍쟁이-깍쟁이 등

6) '규범집'→'대사전'(1992) 수정

누더기(맞 23)→누데기, 무더기(맞 23)→무데기 등

요컨대, 남북 맞춤법의 차이는 같은 원칙에서 파생된 세부의 대립이다. 세부
의 차이라도 사이스은 흔히 '내가 : 냇가' 같은 구별을 옳다고 하나, 반면에
'강가(姜氏) : 강가(江邊)' 같은 혼돈은 방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사잇소리 표
기의 처리는 왕도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헌어를 전통의 뿌리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많은 것들도 남북대립의 관점을 넘어서 폭넓은
지혜를 응집해 볼 것이다. 이제 언어통일도 험난한 남북통일 못지 않게 어려움
을 새삼 인식해야 하겠다.

3.2. 띄어쓰기와 40자모

우리 맞춤법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띄어쓰기다. 1964년 김일성의 1
·3교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네모글자를 가지고도 띄어쓰기와 점치기로 조절하
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고 전제하고 붙여서 단어화할 것을 주장했다. 1966

년 5·14교시에서도 지금처럼 너무 많이 띄어쓰지 말고 붙이는 방향으로 가야 독서능률이 오른다고 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같았던 띄어쓰기는 남북의 큰 격차가 빚어졌다. '규범집'의 이런 규정은 다행히 1987년의 수정으로 다소 남북이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7) 남-북 띄어쓰기의 차이

정무원 총리-정무원총리, 사회주의 농촌-사회주의농촌, 3년 석 달-3년석달, 7·4 공동 성명-7·4공동성명, 김철이 박사 선생-김철이박사 선생, 학생 스스로-학생스스로 등

좋은 것-좋은것, 나의 것-나의것, 같 것-같것, 학교 앞-학교앞, 사는 곳-사는곳, 학생들 사이-학생들사이, 여러 차례-여러차례, 네 그릇-네그릇, 우리들 전체-우리들전체 등

들어 보다-들어보다, 읽고 있다-읽고있다, 길고도 긴-길고도긴, 올 듯하다-올듯하다, 더욱 더-더욱더, 다시 말하여-다시말하여, 늦은 가을-늦은가을, 두 달 걸려-두달걸려, 두루미 쫄지 같다-두루미쫄지같다 등

8) '규범집' 1987년 개정

제2차 세계대전, 썬 마리노, 세인트 루시아, 축구와 배구 및 롱구 경기, 선진 기술과 리론, 그렇지 않다, 마지 못해, 매 군, 귀 대표, 우리 집 문제, 모뜨는 기계, 키작은 나무, 물얕은 바다 등

9) '조선말대사전'(1992) 수정

같은중심원-같은 중심원, 꼭지없는 잎-꼭지 없는 잎, 늙은눈-늙은 눈, 머리 없는 동물-머리없는 동물, 배게뿌리기-배게 뿌리기, 살진열매-살진 열매, 여러단분쇄-여러단 분쇄, 자는누에-자는 누에, 큰글자-큰 글자 등

이 접근은 소망하는 경향이나, 위 9)와 같은 이후 '대사전'의 두 갈래가 띄어쓰기의 확대인지는 분명치 않다. 구두법도 다음 10)처럼 남북이 다른데, 심한 것은 쉽표, 붙임표, 따옴표 등이다. 접속기능을 가진 어미에 쉽표를 찍지 않고, 붙임표를 보통 글에 사용하며, 색다른 따옴표를 작품, 서명에 쓰는 것이

그것이다. 띠레 (tupe)라는 이음표나 따옴표는 러시아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도 기본은 같으나, 제목구성, 대용보다 같은 표현의 반복, 수령에 대한 존경 등이 다른 점이다.

10) 엮표, 붙임표, 따옴표의 차이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은 맞았다(북한: 이음토 ~며, ~고 등에 엮표 찍지 않는 원칙).

남 : 마르크스·레닌주의-북 : 맑스-레닌주의, 동니켈철합금-동-니켈-철합금, 굵은넓은잎나무-굵은-넓은잎나무, 물리화학적 성질-물리-화학적 성질 등(북한: 붙임표를 사전, 논문에 한정치 않고 널리 사용).

《영화예술론》, 혁명소설 《백두산기슭》, 논문 《광주학생사건의 교훈》, 월간잡지 《3.1월간》, 《조선말규범집》 등(북한: 작품명, 서명 등에 특이한 따옴표 《 》 사용).

11) 문체의 특징

제목 구성 : “사회주의적민족어건설의 원칙적문제들에 관한 주체의 언어이론의 심화발전” 《언어학론문집》 8(1990.1), “찬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형상한 노래가사에 대하여” 《문화어학습》 160(1990.1)

표현 반복(밑줄) : 문형을 가르는 표식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문장에 쓰인 문장성분의 상태이다. 문장에 쓰인 문장성분의 상태란 외적으로는 그 문장에… 《조선어문형개론》 (1992. 3), 88면.

수령에 대한 존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김일성저작집》 18권, 27페이지, 찬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영화예술론》 110페이지) 《문화어학습》 160, 34, 12면.

한편, 한글자모의 수는 24자와 40자의 의견이 있는데, 글자를 개혁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40자로 하는 것이 좋다고 5·14교시에서 못박았다.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으로 소급되는 북한의 40자모는 자모의 명칭과 순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큰 차이가 있다. 특히 14) 배열순서는 사전이나 색인 등을 찾는 데, 남북의 차이로 인한 불편이 겉보기보다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색출은 습관

의 차이라고 하겠으나, 40자모의 낱선 순서는 첫머리만 아니고 제2음절 이하에서 어긋나 큰 혼돈을 빚기 때문이다.

12) 북 40자모의 명칭과 순서

기 기옥/그, 니 니은/느, 디 디을/드, 리 리을/르, 미 미을/므, 비 비을/브, 시 시을/스, 이 이을/으, 지 지을/즈, 치 치을/츠, 키 키을/크, 티 티을/트, 피 피을/프, 히 히을/흐, 된 된기을/끄, 된 된디을/뜨, 뻐 뻐비을/쁘, 썌 썌시을/쓰, 썌 썌지을/쯔 (19자)

가, 갸, 개, 꺄, 그, 교, 구, 규, 구, 기, 개, 꺄, 꺄, 개, 나, 귀, 구, 나, 규, 꺄, 꺄 (21자)

13) 남-북 자모명의 발음 차이

디글이 [디그시] - 디을이 [디으지], 지을이 [지으시] - [지으지], 치을이 [치으시] - [치으치], 키을이 [키으기] - [키으키], 티을이 [티으시] - 티을이 [티으치], 피을이 [피으비] - 피을이 [피으피], 히을이 [히으시] = [히으시]

14) 북 40자모의 배열 순서

가가, 가갸, 가극, 가기, 가객, 가계, 가계, 가괴, 가귀, 가과, 가권, 가난, 가다, 가시, 가자, 가치, 가판, 가화, 가끔, 가뜩, 가뻐, 가짜, 가야, 가을, 가인, 가액, 가외, 가위, 가의, 가윈, 각고, 깊이, 개각, 개, 게시, 계급, 괴다, 귀, 과수, 권, 패도, 꺄, 나귀, 라마, 바늘, 싹다, 새, 쇠신, 자, 칼치, 파리, 훼손, 까다, 떼기, 빵, 빼기, 짝, 아침, 야, 우리, 으아, 잎, 애교, 애, 에그, 예, 외가, 위, 의견, 와, 원격, 왜, 뺑뺑 등

요컨대, 남북 맞춤법의 다른 차이는 띄어쓰기와 40자모에도 있다. 원래 규정하기 어려운 띄어쓰기는 1988년 남측 개정의 불이는 경향과 1987년 북측 개정의 띄는 경향이 진전되면 통일로 접근될 것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성질상 엄격하기 어려운 구두점의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나, 북측의 40자모와 그 배열의 차이는 실제로 엄청난 이질감을 실감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한글이 갖고 있는 문자의 본질에 연유한 것이어서 다만 남북의 대립으로 보고 조절할 성질의 것만은 아니다.

3.3. 한자음과 외래어

표준어의 문제이기도 한 남북 한자음의 차이는 이미 지적한 표준발음 18) 예와 같이 두음 ㄹ, 니의 표기라고 두루 알려져 있다. 그런데, 표기의 차원에서 보면, 제2음절 이하에서의 차이도 두음 못지 않다. 다음 15)와 같이 남의 발음 표기와 북의 본음표기로 격차를 빚었기 때문이다. 본음표기는 물론 형태주의 원칙에 부합되나, 두음의 경우와는 상반되게 발음되지 않는 '라렬[라열]'과 같은 특례가 눈에 거슬린다. 이들은 표기와 발음에서 남북의 차이가 심하고 얼른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15) 남-북 어중 ㄹ, 니 두음의 차이

나열-라렬[열], 비울-비를[울], 분열-분렬, 선울-선를, 선량=선량, 선로=선로 등, 신여성-신녀성, 공염불-공념불, 남존여비-남존녀비, 곤란-곤난[골란] 등

역이용-역[영]리용, 열역학-열력학, 해외여행-해외려행, 천육백육십육-천륙백륙십륙, 한양중-한양중[중], 내내월-래래월, 누누이-루루이, 적나나-적[정]라라 등

16) 남-북 한자음의 차이

사주(使戱)-사축, 주축(啖囑)=주축, 왜곡(歪曲)-외곡, 의시(歪詩)-(미상), 원수(怨讐)-원수, 표지(標識)-표식, 연매(連袂)-련매, 폐지(廢止)-폐지, 궁량(窮量)-궁냥 등

17) 남-북 '표준말 모음'(1936) 한자음의 차이

간홀(間歇) 간혈=간혈, 내칙(內廁) 내축=내축, 알륵(軋轢) 알력-알륵, 압만(岬灣) 갑만=갑만, 오유(誤謬) 오류-오유, 호시(嚆矢) 효시=호시, 활계(滑稽) 골계=골계 등

한자음의 차이는 의외로 개별적인 예에서도 나타났다. 가령, 원수(元帥): 원수(원적)의 의미구별을 위한 인위적 수정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남북이 각기 다르게 규정한 것들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일제하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한자의 전음(轉音)에서 규정한 한자음의 개정이다. 이것

은. 이후의 현실음을 반영한 수정이나, 문제는 남북이 상치되는 '오류-오류' 같은 개정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개개의 성격에 따라 가려야 하겠으나, 난점은 역시 시각의 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외래어 표기는 1·3교시에 따라 종래의 외래어를 사용할 말, 다듬을 말, 외국말로 구분하는 대전환을 단행하고, 1969년에 새로운 '외국말적기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규제된 외래어는 규정 없이 관용에 따르고, 외국말은 현지의 원음주의적 표기법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 외래어 표기는 러시아에서 영어로 전환하는 경향이 보이고, 외국말 표기는 현지를 전사(轉寫)의 기준이나 정도의 차이로 남북의 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k, t, p, v, o, i 등의 전사음에서 차이가 심하다.

18) 북의 외래어 표기법 개정

- 1945. 8.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1. 조선어학회) 시행
- 1956. 1.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시행
- 1969. '외국말적기법' 시행
- 1982. 10. '외국말적기법'(수정중보) 시행

19) 북(남) 외래어의 표기(1.3 8번 참조)

쓰는 외래어 : 고디크(고딕), 그루빠(그룹), 까벨/케불(케이불), 캄빠니아(캄페인), 도나트(도넛), 트랙포르(트랙터), 런닝샤츠(러닝셔츠), 발코니, 불도젤(불도저), 샤와(샤워), 모터찌클(오토바이), 카스테라(카스텔라), 카텐, 코르세트(콜셋), 포스터, 튜브 등

버린 외래어 : 나이프, 노르마, 노크, 다다미, 담파(담퍼), 드라이클리닝, 마후라(머플러), 미니스카트(미니스커트), 볼펜, 사보타지, 슈바, 쉴로스, 원피스, 주스, 캄페인, 카라멜(캐러멜), 투피스, 포크레인, 헬리콥터 등

20) 남-북 국명, 지명 표기의 차이

몰디브(Maldives)-말디브, 몽고(蒙古)-몽골, 베트남(Vietnam)-월남, 시리아(Syria)-수리아, 아랍에미리트(Arab Emirates)-아랍추장국, 캄프차아(Kampuchea)-캄보자, 터키(Turkey)-토이기, 기니(Guinea)-기네, 라이베리아(Liberia)-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말가슈, 모로

코(Morocco)－마로꼬, 베냉(Benin)－베닌, 이집트(Egypt)－에급, 카보베르데(Cabo Verde)－베르데감,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상아해안

그리스(Greece)－회랍, 네덜란드(Netherlands)－화란, 덴마크(Denmark)－단마르크, 루마니아(Rumania)－로르니아, 몰타(Molta)－말따, 바티칸(Vatican)－바띠까노, 벨기에(België)－벨지끄, 불가리아(Bulgaria)－벌가리아, 스웨덴(Sweden)－스웨리예, 아이슬란드(Iceland)－이슬란드, 오스트리아(Austria)－오지리,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체스꼬슬로벤스꼬, 폴란드(Poland)－뿔스까, 헝가리(Hungary)－웡그리아, 멕시코(Mexico)－메히꼬

시리아 다마스쿠스(Damascus)－디마스끄, 일본 도쿄/동경－도쿄, 오만 무스카트(Muscat)－마스까트, 말라위 릴롱웨(Lilongwe)－리롱웨, 나미비아 빈트후크(Windhoek)－윈드후크, 알제리 알제(Alger)－알자자이크, 이집트 카이로(Cairo)－까히라, 리비아 트리폴리(Tripoli)－타라불스,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꺠뻬하븐, 도미니카 로조(Roseau)－로쎬아우, 시베리아(Siberia)－씨비리 등

요컨대, 한자음은 우리대로 오랜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남북의 차이를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표준어의 사정과 같이 표기와 발음을 각기 규정해서 개편되는 경우는 이미 열거한 대로 부분적인 것이다. 외래어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해서 남북의 차이가 빚어지지만, 국명, 지명은 사람의 개명과 같이 명명하는 대로 누구나 개칭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버마'를 개칭한 '미얀마'에 순응하듯, 남북에서 달리 규정된 표기는 격차를 벌리며 각각 굳어지고 있다. 일부 한자음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3.4. 문자개혁의 허실

1948년 1월에 공표한 '조선어 신철자법'은 새 자모 6자를 포함한 42자모였다. 6자모는 김두봉 주도하에 한글 풀어쓰기를 전제한 문자개혁의 한 안으로 작성되었으나, 1954년 9월 새로 제정한 '조선어 철자법'을 공포함으로써 그 시행도 문자개혁도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다. 그러나, 풀어쓰기 문자개혁에 대한 미련은 김일성 교시에서 개혁안을 완성했다가 통일 후에 단행해야 한다는 거듭된 강조로 나타났다. 이후의 정보는 교시대로 완성했는지 학교에서 조금씩 가

르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한자문제는 1949년에 한자사용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한 지 15년만에 1964년 김일성 1·3교시에서 일정한 기간 한자를 배우고 써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에 따라 1968년에 한문교육이 부활되었다. 그 이유는 남측 출판물과 고문헌을 읽기 위해서라고 한 만큼, 시한은 남북통일과 고문헌 번역이 완성되는 요원한 후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도 잘못 쓰는 어문지식 부족, 조선어 시간 연장 등을 교시에서 언급한 것은 한자교육의 목적이 명목보다 국어교육의 강화책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은 필요에 따라 사용될 전사법(轉寫法)의 성격이나, 이것 역시 남북이 같지 않다. 문자개혁의 차원은 아니라도, 국제표준기구의 요구로 1985년에 시작하여 1987년에 남측 모음안, 1991년에 북측 자음안을 수용, 1992년에 남북단일안 작성에 합의했다. 이것은 기계적 전자와 복원을 목적으로 한 전자법(轉字法)이며, 전사법인 로마자 표기법을 겸용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라도, 이 합의는 장차 기대할 언어통일의 한 선례로서 갖는 의미는 보기보다 매우 크다.

21) 북의 로마자 표기법

ㄱ k/g ㅋ kk, ㅋ kh, ㄷ t/d, ㅌ tt, ㅌ th, ㅍ p/b, ㅍ pp, ㅍ ph, ㅈ dz, ㅉ tss, ㅊ tsh, ㄴ n, ㄹ r/l, ㅁ m, ㅅ s, ㅆ ss, ㅇ/ng, ㅎ h, ㅏ a, ㅑ ya, ㅓ ǒ, ㅕ yǒ, ㅗ o, ㅛ yo, ㅜ u, ㅠ yu, ㅡ ũ, ㅣ i, ㅞ ai, ㅟ yai ㅠ e, ㅡ ye, ㅢ oi, ㅣ wi, ㅤ ũi, ㅦ wa, ㅧ wo, ㅨ wai, ㅩ we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1955.)

ㄱ k/g, ㅋ gg, ㅋ k, ㄷ t/d, ㅌ dd, ㅌ t, ㅍ p/b, ㅍ bb, ㅍ p, ㅈ ch/j, ㅉ jj, ㅊ ch, ㄴ n, ㄹ r/l, ㅁ m, ㅅ s, ㅆ ss, ㅇ/ng, ㅎ h, ㅏ a, ㅑ ya, ㅓ o, ㅕ yo, ㅗ o, ㅛ yo, ㅜ u, ㅠ yu, ㅡ u, ㅣ i, ㅞ ae, ㅟ yae, ㅠ e, ㅡ ye, ㅢ oe, ㅣ wi, ㅤ ui, ㅦ wa, ㅧ wo, ㅨ wae, ㅩ we, Kim Il Sung, Kim Jung Il(Korean Review, 1982.)

22) 국제표준기구(ISO)의 남북단일안(1992)

ㄱ k, ㅋ kh, ㅋ kk, ㄷ t, ㅌ th, ㅌ tt, ㅍ p, ㅍ ph, ㅍ pp, ㅈ c, ㅉ ch, ㅊ cc, ㅅ s, ㅆ ss, ㅎ h, ㅇ /ng, ㄴ n, ㄹ r/l, ㅁ m, ㅏ a, ㅑ eo, ㅓ o, ㅕ u, ㅡ eu, ㅣ i, ㅞ ae, ㅟ e, ㅢ oe, ㅣ ya, ㅤ yeo,

ㅕ yo, ㅠ yu, ㅞ yae, ㅟ ye, ㅘ wa, ㅙ weo, ㅚ wi, ㅛ wae, ㅜ we,
ㅡ yi

요컨대, 북한에서 작성했던 문자개혁, 즉 한글 풀어쓰기는 폐기되고, 통일 후에 단행할 개혁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리높여 찬양한 한자폐지는 외형적으로 견지하면서 한자교육을 부활하여 결손을 메우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들이 다 남북통일을 조건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되나, 로마자 전자법은 그런 조건 없이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거두었다. 평화통일의 원칙하에 남북통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헤아리기도 어렵지만, 그 저변의 언어통일도 이에 못지 않게 어려울 것이 새삼 느껴진다. (1995. 6. 30.)

참 고 문 헌(계속)

조선어학회, 1936,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경성 : 조선어학회.
문교부, 1988, “한글맞춤법”, 관보 10,837(1988.1.19), 3-31.
송기중, 1988,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생활 15(1988. 12), 107-124.
송기중, 1994, “국제표준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과 남·북한 대화의 전망(하)”,
말글생활 2(1994. 10), 97-120.

(전호 정정 : 175면 22행 매돌→맷돌, 24행 역어유해→역어유해보, 179면 6행
思情리→恩情리, 12행 이국→외국, 180면 1행 현행은 1981년에 원음주의로
크게 전환했다.→(삭제), 181면 16행 [싸]돈-안사[싸]돈→[싸]=[안사[싸]돈)